



한바탕 춤으로 27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아시아최종예선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조영철(11)이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빠진 맨유, 뉴캐슬과 1대1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박지성(30)이 뉴캐슬과의 경기에 결장했다.

맨유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1~201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박지성은 이날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22일 벤피카(포르투갈)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결장이다. 맨유는 후반 4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후반 19분 뉴캐슬에 페널티킥을 허용해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그쳤다.

선덜랜드에서 뛰는 공격수 지동원은 위건과의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0분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한 시간이 너무 짧았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가 졌다

헤타페에 0-1 시즌 첫 패배

레알과 6점차 ... 우승 먹구름

스페인 프로축구의 강호이자 세계적 인기 구단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27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페레스 알폰소 콜리세움에서 열린 헤타페와의 2011~2012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로 졌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8승4무1패로 승점

28을 기록해 선두 레알 마드리드(11승1무1패·승점 34)와 승점 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4월 30일 레알 소시에다드에 패배한 뒤 프리메라리가에서 이어온 바르셀로나의 무패행진은 18경기에서 끝났다.

간판 리오넬 메시는 후반 45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무효가 된 데다 종료 직전에 날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등 불운을 겪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1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26일 남부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열린 광주 FC 유소년 클럽 대항 축구대회에서 U-9 경기 참가 선수들이 공을 다루고 있다. <광주 FC 제공>

‘조영철 결승골’ 한국, 1-0 사우디 격파

2승1무 ‘승점 7’ A조 선두로 반환점

홍명보호 런던올림픽 본선행 과관불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조 1위로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은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예선 A조 3차전에서 전반에 터진 조영철(알비렉스 니가타)의 선제 페널티킥을 끝까지 지켜 사우디를 1-0으로 물리쳤다.

조영철은 전반 33분 사우디 수비수 아흐마드 알리비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상대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낮게 깔아 차 결승골을 뽑아냈다.

한국은 승점 3을 추가한 승점 7로 A조 선두 자리(2승1무)를 지켜 내년에 속개되는 남은 경기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1무2패(승점 1)로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런던올림픽 최종예선에서는 A~C조 1위에 올림픽 본선 티켓을 준다. 조 2위로 처지면 2위 팀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아프리카 예선 4위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올림픽 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은 김현성(대구)과 백성동(연세대)을 최전방 공격수로, 한국영(소난)과 김태환(서울), 정우영(교토상가), 조영철(알비렉스 니가타)을 미드필드에 배치했다.

지난 24일 카타르 원정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홈경기를 치르게 된 한국은 전반 2분 만에 실점 위기를 맞았다.

한국 수비수 홍정호(제주)가 골키퍼에게 백 패스한 볼을 사우디의 야흐야 다그리리가 빼앗아 골키퍼 이영범(부산)과 맞서는 상



황이 나온 것. 하지만 이영범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한국은 조영철의 활발한 측면 돌파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전반 25분에는 김태환이 올려준 크로스를 김현성이 머리로 받아 넣었지만 크로스바를

스치고 넘어갔다.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정우영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사우디 수비수 아흐마드 알리비가 한국 선수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퍼로 나선 조영철은 2분 뒤 사우디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오른발로 낮게 깔아 차 득점을 올렸다.

후반에는 정우영을 대신해 투입된 윤빛가람(경남)이 공격을 조율하며 추가골을 노렸지만 사우디의 반격도 거셌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불을 뿜은 뒤 김태환이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은 탓에 사우디 수비수의 발에 걸리고 말았다.

1-0 승리로 올 시즌 일정을 마친 올림픽 대표팀은 내년 2월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홈으로 건너가 최종예선 4차전을 갖는다.

/연합뉴스

U9 신화FC(A)·U12 침단슛돌이 우승

광주FC 유소년클럽 대항 축구

제 1회 광주 FC 유소년 클럽 대항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광주 FC가 유소년 축구클럽 저변 확대를 위해 26일 남부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유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열었다.

400여명의 선수가 각축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신화 FC(A)가 전승행진으로 U-9 경기 우승을 차지했고, U-12 우승컵은 침단 슛돌이에게 돌아갔다.

U-9 결승전은 신화 FC의 집안대결로 벌어졌다. 신화 FC(A)가 우승팀이 됐고, 신화 FC(B)가 준우승을 달성했다. 유스 FC와 침단 슛돌이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

회에서 8골을 터트린 침단 슛돌이 전준영은 U-9 MVP에 선정됐다. U-12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침단 슛돌이팀이 최민선 축구교실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신화 FC와 이승기팀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신화 FC의 박정우는 12골을 몰아넣으며 대회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광주 FC 선수단도 축구 클리닉, 사인회, 일일 감독 등의 이벤트에 함께 하며 축구 꿈나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광주 FC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주말리그로 대회를 확대 실시해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클럽간에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하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차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작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워셔세탁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